

이젠 ‘맨도롱’하게 지낼 수 있어요!

* ‘맨도롱’ : ‘따스하다’ 의 제주방언

□ 개요

- 기관명 :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주민 및 지역내 14개 지역아동센터

<수혜기관 현황>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제2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심화지역(성산읍)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예산감소에 따른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된 단체(지역아동센터)에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 주 소 :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지역아동센터(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7개소)
- 인원현황 : 성산읍 지역주민 34가구, 지역아동센터(14개소) 아동 394명

- 일 시 : 2019. 06. 14(금) 09:00~15:00 / 2019. 06. 18(화) 14:00~17:00
- 내 용 : 지역 네트워크 협업으로 사회적갈등 심화지역 중심으로 에너지비용 부족분과 운영비 부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추진
- 참석자 : 제주지역본부 4명 및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42명
- 작성자 : 제주지역본부 홍춘희 과장

□ 내용

- 제주의 ‘영주 십이경’을 아시나요?
‘영주* 십이경’은 예로부터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일컬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12경승지입니다.
이 중 첫 번째가 ‘성산일출’입니다.
(* ‘영주’는 제주의 옛 명칭임)



‘성산일출’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의 제주 최동단인 성산포의 해돋이 광경을 말합니다.

커다란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해발고도 182m의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해돋이 광경이 참으로 장엄하여 일출봉(日出峯)이라고도 부릅니다.

풍광의 아름다움과 함께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던 이 곳(성산읍) 주민들은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건설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회적갈등이 지금까지 확산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의 주축인 지역아동센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예산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 쫓기대회 등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지역본부 직원들은 KEA 주요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4개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사업을 찾고자 고민 하던 중 우선 ‘사회적 갈등지역’ 중심으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대상자를 성산읍 일대 및 14개 지역아동센터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객관적 대상자 선정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등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추진하였고, 성산읍과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을 수요 파악하여 수요자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선정회의>

성산읍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 수혜대상 34가구를 의뢰받고 본격적인 활동준비와 함께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아침부터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어렵게 정한 날짜라 즐거운 마음과 함께 서귀포시 성산읍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팀별(보일러 설치·점검·수리팀, 정책상담팀, 환경정화활동팀 총 42명)로 나눠 지원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대부분 홀로 계신 노인분들이어서 '올 겨울은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 하며 비도 오는데 수고하셨고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인사를 받는 순간! 힘들었던 순간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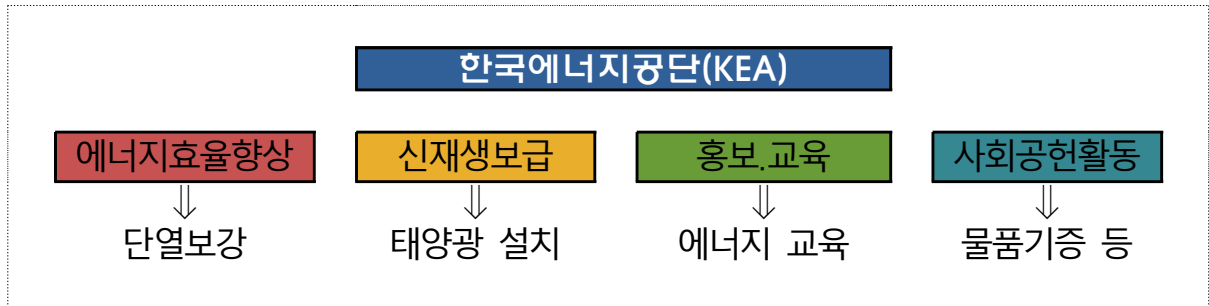


<보일러설치 및 철거>

또한,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제주17.17%, 전국5.6%)이 높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제주에서 지역아동센터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주로 정부·지자체 지원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어오던 지역아동센터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KEA 주요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4개 사업의 한 아
이템으로 지역사회 아동복지 주축인 14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
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물품(제습기, 공
기청정기, 전기온풍기)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KEA 주요사업(맨도롱나눔사업) 체계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건 섬 속의 섬에 위치하고 20여명이
머무르는 우도지역아동센터는 사면이 바다여서 습한 환경으로 전
년도에 공사를 실시한 아이들 생활공간(벽, 바닥)이 습기로 인한
곰팡이로 고민하던 차에 꼭 필요했던 물품(제습기)을 멀리 섬까지
와서 주셨다고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선박을 이용해 우도를 방문한
날도 비가 추적추적 왔는데 곳
은 날씨에 물품을 킁킁대며 들
고 들어서는 모습에 더 고마움
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물품기증>

앞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
들을 지낼수있게 되어 더없이
좋다는 말씀과 함께 우도에 오시면 마음을 담은 따뜻한 차를 드
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인연으로 지금도 SNS로 이
야기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회공헌 봉사활동 후 성산읍
장님께서서는 이번 활동은 사전
조사 때부터 정말 의미있는 일
이라 생각했는데 모범적인 모
습을 보여준 봉사활동 참여자
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산읍 주민의 사회적 갈등 해
소에 조그만 보탬과 따듯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어서 마음의 한
여백에는 뿌듯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물품기증>

봉사활동중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저희 손을 꼬옥 잡고선
“정말 고맙쑤다 예!!”라고 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지금도 눈 앞에 선합니다.

- **에필로그** : 제주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곳에 도움을 주시려면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7길 28(연동)
전화 : 064-702-5578(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참고사항** : 재능기부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과 취지 및
활동사항들을 잘 설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나눔’, ‘저소득층’이란 단어는 아이들에게 위축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행 시 주의해야 합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사회공헌활동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사회공헌 대상자가 정해지면 KEA의 사회공헌의지가 무한한 신뢰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입장을
감안해 상대방에게 편안히 다가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